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무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8年(檀紀 4321年) 5月 31日 第 132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炫
인쇄인 盧哲容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연 성황



50차 정기이사회 겸해 열려

본회 50차정기이사회를 겸한 제13대국회의원 당선자 및 동국을 빛낸 동문 축하연이 지난 16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본회 鄭在哲회장을 비롯한 임원·동문, 모교 李智冠총장과 黃軫經이사장, 교직원 등 320여명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축하연에는 국회의원 당선동문 17명과 최근 취임·영전한 동문 10명이 참석, 전 동문의 축하를 받고 동국발전을 위한 우의와 결속을 다졌다. <관련기사 3·5·6면>



NORTHWEST



미국여행 —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복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 NORTHWEST AIRLINES

동문 祝賀宴 성황리 열려

지난16일 13代당선자 축하등 結束다져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자 17명과 사회各界에서 東國의 명예를 떨친 10명의 동문을위한 축하연이 지난 16일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본회 제5차 定期理事會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예결산안 심의와 부회장 補選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동국을 빛낸 동문들을 축하하며 우의와 결속을 다졌다.

본회 50次정기이사회 결해

동국의 저력과 단합된 면모를 보여준 이날 행사에는 본회 임원 및 동문, 모교간부등 3백20여명의 동국가족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려 축하해 수여등을 한 뒤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연회를 가졌다.

이날 본회 鄭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7명의 동문이 13대국회에 진출, 동국인 모두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당선동문을 축하하고 『우리모두가 더욱 굳게 뭉쳐서 모교발전의 열매를 맺어 주시길 바라며, 본會를 통해 그토록 소원해 마지않던 동창회관 건립도 착수하여 명실공히 또 하나의 동국의 자랑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모교 李禧冠총장은 축사에서 『활동분야가 다르고 정당도 여럿이지만 소속은 하나』라고 전제하되 『모교를 더욱 아끼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자 대표로 나온 黃明秀동문은 답사로 『동문사회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해 더욱 대동단결 힘써 나가자』고 말해 참석동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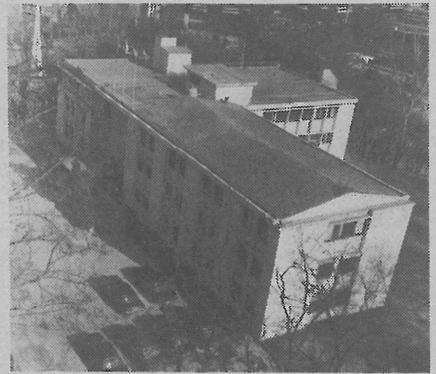
한편 이에앞서 열린 본회50차정기이사회에서는 南基一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1987년도 결산안과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수평없이 박수로써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 한일은행 동문회(회장=張誠一·역시 지점장)는 동창회관건립기금 1백만원을 본회에 전달했다.

백만원을 본회에 전달했다. <詳報 5면>

「수학과」 장학금 전달

수학과동창회(회장=宋祥敏·주택은행 전주지점장)는 지난 달 16일 모교 학과장실에서 88년도 동창회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신종암(수학 1년) 군에게 이번 학기 장학금 30만원을 수여했다. 동회는 매년 1명의 장학생을 선발 동창회장학금을 전달해오고있다.



“재향군인회관 매입 入住式 가저”

재향군인회관 건물 및 부지(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97번지 소재) 매입에 따른 대금지불이 최종완료됨에 따라 지난 6일 개교기념식에 이어 입주식이 있었다. 東國別館(가칭)으로 명명된 동건물은 대지면적 2,455평, 건평 598평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이며 총 36억 7천 5백만원에 매입됐다. 이로써 모교는 20여년 숙원사업을 해결, 캠퍼스공간 확충에 새전기를 맞았다.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해전교수·모교불교대학장등을 지낸바있고 지난 74년 이래 본會교원으로 활동해왔다.

본회제정「제1회 東國文化賞」(건교기념部門)을 수상하기도 했다.

故趙明基교원의 장례는 27일 오전 10시 모교불교사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장지는 경기도 여주군 북래면 지내리 선역이다.

본회 부회장 補選



◇權魯甲부회장

◇朴志遠부회장

◇李瑛雨부회장

본회 제14대 부회장에 權魯甲(58경제) 朴志遠(58경제) 李瑛雨(67경행) 동문이 각각 선

임했다. 88년도 2차회장단회의에서 부회장 補選에 대한 협의를 거쳐 50차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된 신임 부회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權魯甲부회장=인추협 상임위원·평민당 총재비서실장·정치특보·13대의원

▲朴志遠부회장=경제학박사·공학박사·수원동문회장·영신여중고이사장·13대의원

▲李瑛雨부회장=모교 교수·행정대학원 학장·학술부장·학생처장<당연직>

嶺東동우회 임원 개편 회장에 金炳潤동문

嶺東동우회(회장=金炳潤)는 9차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회장단을 선출했다.

2대회장에는 金炳潤(58법학·한국산업연구원장) 동문이 선임되었고, 崔昌淳(65상학·산동회계법인 이사) 동문이 동부 간사에, 張敏洙(77농경·강원산림관리과장) 동문이 부간사에 각각 선출됐다.

趙明基교문 別世



本會 趙明基(31 中佛·文博·前모교총장)교문이 25일 오전 1시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모교 5대총장을 역임한 故趙明基교문은 1905년 경남출생으로 모교전신 中央佛敎專門學校를 졸업, 일본 동양대학에서

8만 동국인의 架橋로서 지평을 더한 본회가 지난 8일로 창간12주년을 맞았다.

지난 76년 5월 8일 모교 개교70주년을 기해 창간호를 낸 이래 지형132호를 기록해온「동우회보」는 초창기의 어려움에

건속에서도 격월간으로 발행하며 동문간의 대화와 우의의관장으로 소지강화, 동문발굴, 장학사업등을 전개,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헌해왔다.

격월간으로 발행되어 오던「동우회보」는 77년 3월호부터 월간으로 바뀌었고 85년 3월 지령100호를 맞으며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는 동시에 전면 가로쓰기체제, 컬러화보 게재등을 단행한바 있다.

창간12주년을 맞은「동우회보」는 앞으로도 8만동문의 대변자로서, 동문들의 사랑방으로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동문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며, 국내외 동문발굴 및 조직강화를 비롯해 동창회관건립, 장학기금조성 등 모교와 본회발전의 편당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을 기해 나갈것이다.

경주캠퍼스 설립10주년을 기념하는「王石한마당」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행사는 법경대학생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柳부회장은 최근 경제동향과 취업대책에 관한 특별강연을 했다.

한편 柳부회장은 10일 전야제에도 참석, 경주캠퍼스 설립 10주년을 축하했다.

마당 山友會 산행 동문동호인모집중

마당 山友會(舊동국캠 퍼스 산우회) 회장 李武雄·사단법인 한국불교 반공연합회장·

사진)의 월례산행이 지난 8일 새벽경 승가사에서 있었다.

현재 41명의 회원으로구성돼 있는 동회는 86년12월17일 창립된 이래 주말 및 월례산행을 빠짐없이 실시해오며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모임을 갖고있다.

▲연락처=이승림總務 387-4264.

經大院 장학금 수여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曹奎 외교양행代表)는 지난달 2일 제31기 신입생 3명에게 동창회장학금을 수여했다.

매년 2회씩 모교 신입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동창학금의 이번 수혜자는 고성만(석사과정)·이해분(〃)·홍순열(〃) 등 3명이다.

본회 柳周馨부회장 경주서 취업特講

본회 柳周馨부회장(충남발전그룹 부회장)은 지난11일 경주캠퍼스에서 열린 동문기업인초청 취업특강에 연사로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同門 17명 13代당선되

지난 4월26일 실시된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17명의 동문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15명, 전국구 2명이 당선된 영광을 안았는데 총입후보자는 64명. 대학별 당선순위는 서울대·고대·연대에 이어 네번째를 기록했고, 金東英·崔炯佑동문이 4選, 黃明秀·慎順範·金榮龜동문이 3選의원이 됐다.

정당별로는 평민 6명, 민정·민주 각 4명, 공화 2명, 무소속 1명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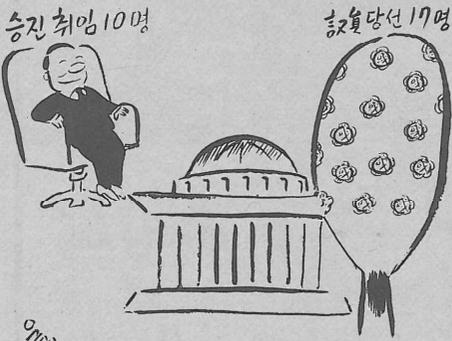
한편 이번 총선에서 동문경합지역은 6개지역구였고 지역별로는 총남·전남 각 4명으로 최다 당선자를 냈다.

<당선자프로필 6면>

鄭在哲회장 祝電

본회 鄭在哲회장은 4월27일 「4·26」총선에서 당선된 17명의 동문에게「영예로운 당선은 8만 동국인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축하전문을 보내 선전을 격려했다.

東友漫評 鄭雲耕



동국의 자랑...

本會來訪

▲朴壽天(77행정·새한종합금융(株) 투자신탁과장) ▲辛承吉(63경제·성하상사(주)이사) ▲徐成末(63생물·삼화전자代表) ▲崔允植(61경제·서울종합상사代表) ▲모교총학생회장최성훈 부부장 한상열 대의원 회회장 서귀한 서울연합회장 김선식 ▲平敏善(63경제·12대의원) ▲손영섭(52정치) ▲尹虎廠(57경제·전뉴육동창회장) ▲元客雄(63영문·남양전기(주)대표이사) ▲경주캠퍼스대의원의장 노영환

異域萬里서도 東國은 하나

海外支部 활동 활발... 한일간의 우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현황을 파악, 동국의 것 받아내 다시 모이는 사업을 전개해온 본회의 「海外支部 재파악」에 해외동문들의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

현재 세계 각처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외東友會數는 12개 지부. 지역만으로 떨어져 있어도 해외동문들의 모교에는 남달라 정기총회, 월례회, 아우회 등 정기모임에도 동문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모교 도서기증 등의 여러 사업을 벌이며 모교와 동문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본회는 이번 「해외지부 재파악」을 통해 곧 발간될 『東國人名錄』 제 6집을 補正하여 해외동문들의 근황을 널리 알릴 계획이며 보다 많은 해외동문들에게 「동우회보」를 보냄으로써 지부촌 어디서나 동국인의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 성원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들어온 해외지부의 현황을 소개한다.

50여同門 활동중

美중서부지부 지난 76년 이래 「동국회지」를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시카고 중심의 동국인 모임. 약 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同會 교문에는 윤응모(47전문) 남태희(49문과) 강대하(50화과) 동문, 회장 이정재(61정치), 부회장 이인호(60불교), 총무 정대환(71정치) 동문들이 회발전에 힘쓰고 있다.

한편 前회장인 김주성(65법학) 동문은 동회의 조직강화에 공로자로 손꼽히고 있다.

교포사회의 주역

미시간지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한 동회는 10년이 넘는 연륜을 자랑한다. 매월 각종등 가정을 돌며 월례회를 갖는 등 친목과 단결이 잘된 지부. 현재 약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돼있는 동회의 회장엔 김원규(67사학), 부회장 명형식(69경영), 김광열(70경영), 총무 이상중(79식공) 동문들이 수고하고 있다.

현한인회장을 맡고있는 박병수(61법학) 동문을 비롯한 전상공인협회장 명형식 동문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30여동문 참여해

美동부지부 74년부터 동창회를 회를조직, 현재 약 1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막강한 해외지부.

또한 동문들의 활약도 활발해 전회장 윤호연(57경제) 동문



尹虎憲 동문

이 최근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에 피선된바 있고, 동학회에전 인규(64정치) 구영범(66영문) 정해묵(73무역) 동문들이 홍보 기획·총무이사로 활동중이다. 뉴욕지부를 이끌고있는 회장은 전영섭(49문과) 동문이다.

美洲 7개지부 巡訪 회관건립사업등 협의차

순방 해외지부

L A (남·북가주) 지부
샌프란시스코 지부
중서부 지부
동부 지부
워싱턴 지부
미시간 지부

申益炫 사무국장



총동창회와 해외지부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동창회관 건립사업및 장학사업의 실무협약 차 본회 申益炫(72경영) 사무국장이 오는 6월 8일 美 7개지부 순방에 나선다.

申국장은 약 1개월간의 美 洲支部 순방을 통해 해외지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장학사업을 협의하고, 동창회관건립에 해외동문들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해외동문들에게 본회 및 모교의 활동상황을 직접 전하고 해외지부 조직강화에 힘써는 여러 동문에게 감사의 뜻도 전하게 된다.

본회의 실무자급 해외지부 방문은 8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지난 85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 순

방 역시 본회-해외지부간의 유대강화를 비롯해 각종사업의 구체적이고도 충실한 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회의 이번 미주순방은 동부지부의尹虎憲 동문 등 각해외지부 동문·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크게 힘입고 있다.

申국장은 오는 8일 出發, L A (북가주, 남가주) 지부-샌프란시스코지부-중서부(시카고)지부-동부(뉴욕)지부-워싱턴지부-미시간(디트로이트)지부를 차례를 들르고 오는 7월초 귀국할 예정으로 있다.

본회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해외지부 및 동문들의 활동상황을 생생히 취재, 이를 보도할 계획이다.

각종행사로 계속 다져

北加洲지부 매년 「송년의 밤」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를 열어 서로 돕는 동문사회를 이뤄오고 있다.

3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이고 회장 한양수(66국문), 부회장 김의중(66경제) 하혜원(67영문), 총무 이석우(76농경), 재무 강관수(76전자) 동문들이 同會를 이끌고 있다.

유학생 주축 모임

在獨지부 유학생 동문 40명 등 약 50여명의 회원이 모여 동문애를 바탕으로 굳게 뭉쳐있다.

이제일(60화과) 회장, 유국현(83화과) 총무가 同會를 맡아

오고 있다. 이와함께 최찬기(58법학)한영환(58화과)허길탁(정의)박영국(61생물)이원희(64경제) 동문들이 이사로서 활약한다. 금년도 정기총회는 5월 21~23일까지 북부독일 해변에 위치한 Scharbewitz에서 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88년 임원진 출범

제카나다支部 在 캐나다 지부는 5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다. 同會는 지난 4월 2일 제11차 정기총회를 열고 88년도 새임원진을 선출. 회장에는 피세영(64영국), 부회장 이정호(71불교), 총무에는 이현구(74법학) 동문들이었다. 동문간의 유대와 모교발전을 위해 관심을 쏟아오고 있는 캐나다 유일의 동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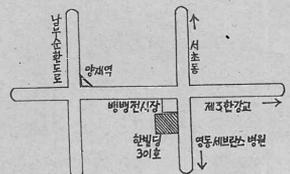


◇자리를 가득메운 美 북가주지부의 모임(오른쪽)과 지난연말 「동국인 송년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한 美 중서부지부 회장단.

맥(脈)을 알고 投資합시다

不動産

全般에 관련된 모든問題 해결·알선 상담



기을綜合開發株式會社

附設 國土綜合開發研究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道谷洞 943-7
(韓 빌딩 301號)
567-0057~8(代) 555-7937(直)
代表理事 金昌植(68영문)

東國을 빛낸동문 한자리에 모여

제50차 정기이사회겸 당선축하연 詳報

本會의 제50차 정기이사회겸 제13대 국회의원당선동문 축하연이 지난16일 오후7시 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鄭在哲회장, 黃軫經재단이사장, 李智冠모교총장, 崔載九본회고문,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본회임원등 3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국민의례, 이사회안건심의, 부회장보선, 외관선정기금전납, 축하패 수여, 회장인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87·88회계년도 예결산안심의와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동문 17명과 東國을 빛낸 동문10명에 대한 축하연을 가졌다.

이사회 안건심의회에서는 南基一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87년 도결산안 및 88년도예산안 (별표 참조)을 단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4일 열린 88년도 제2차회장단회의에서 본회부회장으로 새로 선임된 權德甲(58경제), 朴志遠(58경제), 李瑣雨(67경행·모교화생처장·당연직) 동문을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로 추인했다.

특별보좌役に 임명된 權德甲(58경제), 민정당 총재비서실장에 임명된 金榮龜(58경제), 공화당 부총재에 임명된 崔載九, 具滋春(58경제)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축하의 인사를 했는데 『올해에도 총장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으로 채찍질하고있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자를 대표해서 인사말을 한 黃明秀(58경제)는 『이러한 자리를 배풀어준 鄭在哲회장과 총장황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東國發達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날 축하연에 참석한 동문들은 교가를 합창해 제창한 뒤 간단한 음료를 들면서 서로간의 友誼를 다지고 모교의 발전을 기약했는데 일부 동문들은 축하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金殷夏(58경제)의 축사는 金殷夏(58경제)의 축사를 보내왔으며 본

87·88會計年度 예·결산수지표

<수입>

	87 예산액	결산액	88 예산액
이월금	135,322	135,322	5,387,839
동참회비	80,000,000	85,960,000	80,000,000
년회비	10,000,000	6,183,899	15,000,000
이사회비	15,000,000	10,280,000	15,000,000
상무이사회비	10,000,000	7,650,000	10,000,000
광고료	10,000,000	5,960,000	10,000,000
수입이자	1,000,000	838,603	1,000,000
기타	864,678	16,253,719	612,161
합	127,000,000	133,261,543	137,000,000

<지출>

	87 예산액	결산액	88 예산액
회의비	1,000,000	4,495,280	2,000,000
행사비	3,000,000	3,827,460	5,000,000
조직강화비	8,000,000	5,893,200	10,000,000
경조비	4,000,000	5,904,650	7,000,000
회보간행비	30,000,000	33,129,670	35,000,000
장학금	3,000,000	3,000,000	4,000,000
재학생보조비	4,000,000	6,280,800	10,000,000
인건비	19,800,000	20,280,000	21,840,000
상여금	5,800,000	7,420,000	8,650,000
활동비	2,400,000	2,400,000	2,400,000
교통비	3,000,000	4,349,900	5,000,000
출장비	1,000,000	807,460	1,000,000
인쇄비	3,000,000	3,648,360	3,000,000
비품구입비	1,000,000	1,705,975	1,000,000
통신비	2,000,000	2,726,380	3,000,000
구독료	300,000	281,500	300,000
기념품비	500,000	120,000	0
소모품비	1,000,000	812,370	1,000,000
지급수수료	500,000	58,063	300,000
회과건립기금	5,000,000	120,000	0
퇴직연금비	2,000,000	200,000	10,000,000
예비비	8,100,000	3,726,633	5,613,600
이월금	0	5,387,839	0
차용금	18,600,000	3,600,000	896,400
합	127,000,000	133,261,543	137,000,000



◇3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은행동문회(회장=張誠一)에서 회관건립기금으로 1백만원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을 다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부지불색을 하여 8만동문의 열원인 동창회관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李智冠모교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총선거때는 동문모두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TV수상기앞에서 밤잠을 설치다』면서 『비록 동문 국회의원여러분이 정당은 없지만 東國이라는 소속은 하나이므로 모교를 아끼는 마음

회 상무이사인 金萬植(63경영·공고식품 대표이사) 동문이 축하자들에게 간장 1세트를 선물했다. 또한, 柳泓錫(61국문·광주신일스텐대표) 李周炯(65경제·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지사장) 李浚圭(60정치·전주부시장) 金完式(71농학·새마을본부 고성군협의회장) 申鉉濟(경주캠퍼스교수) 동문들이 지방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축하패 수여자 명단

- ◇安澈奐(52 경제) 동아생명보험(주)사장취임
- ◇金東正(57 법학) 대한번호사협회 부회장 취임
- ◇宋寶烈(57 경제) 제일은행장 취임
- ◇尹虎憲(57 경제) 뉴욕한인 경제인협회 회장 취임
- ◇鄭寬溶(58 법학) 대한석탄공사 이사장 취임
- ◇李衍澤(61 법학)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취임
- ◇張明根(64 법학) 법제처차장 취임
- ◇曹武成(64 경제) 광운대학교 총장 취임
- ◇黃軫經(69 행정) 동국학원 이사장 취임
- ◇李範俊(79 행정) 교통부장관 취임

(祝) 第13代 國會議員 當選

同門 國會議員 여러분의 健勝을 빕니다

學校法人 東國學院

東國大學校

理事長 黃軫經

總長 李智冠

副總裁로 재기, 집념의 3選

黃明秀 (53정치·민주)



9대, 11대에 이어 3選을 떠난 승전 정치인. 성격 투신 이래의 리하나만을 지켜온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11대 국회의 정동유회장.

구신민당 훈련원장·민주협간사장·민주당 정무위원·전당대회위원장 등 중앙부대에서 쌓은 경력이 대단하다. 또 황동문은 지난 1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부총재경선에 나서 2위로 당선, 12대 정치放學을 깨닫기 썼고 화려한 재기를 하는 집념을 보였다.

在野運動에 헌신 30년 야인

鄭基榮 (54정치·평민)



30년 야인생활의 관록을 가진 初選議員. 63년 민주당 고흥갑구지구당 위원장을 지냈고 민주협 상임운영위원·민권회사·평민당 대통령선대위 조직부위원장 등으로 활약했다. 維新 이후 반체제민주화운동에 전념, 민주회복국민회의·조국통일과 진주화를 위한 국민연합등을 조직해 활동했고 79년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되는 등 험난한길을 걸었다.

政治特補 맡은 黨 브레인트파

權魯甲 (58경제·평민)



총재비서실장과 정치담당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權魯甲은 오랜야당생활 끝에 3차 해금으로 첫출발 금빛길을 뚫었다. 金大中 총재와는 국회의원비서관(6·7·8대)으로 인연이 되어 구신민당 대통령후보비서관·민정당당보좌역 등으로 활동, 브레인트파로 유명. 72년 이래 여러차례에 걸쳐 투옥이 되는 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었고 민주협창립 60인 중 한 사람.

지역구민 신뢰높은 初選

朴志遠 (58경제·민정)



지난 11대 대선 뒤 재도전에 성공. 평소 철소문제와 재소자의 갱생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차동문은 모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한 뒤 다시 공학석사를 받되만큼 열렬한 學究派. 수원화성정형화장소 등문과와 유대가 돈독하며 永新女中 고이 사장·갱생보호협회 회장·울림파추진중앙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약해 지역구민과 친숙하다.

화려한 경력의 4選중진

金東英 (60정치·민주)



신민당의 원내총무를 맡아 역량이 있는 대화정치 솜씨를 발휘했던 지명도가 높은 重鎮의 위. 전당대회 부총재경선에서는 최고득표로 부총재에 취임, 「左東英」의 진가를 과시하기도. 국회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래 구신민당 사무차장·조직국장·정무위원·신민당 원내총무·민주당 부총재 등 화려한 경력을 지녔다. 12대에 3차 해금으로 故土회복에 성공한 후 재차 당선 4선의원(9·10·12·13)이었다. 건강한 체구에 독심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13代 국회의원 프로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의 막이 내렸다. 동국가족의 성원과 관심 속에 총64명의 동문이 출마 선전한 결과, 13대에 진출한 동국출신 선량은 모두 17명(지역15·전국2). 모교를 빛낸 동문 국회의원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無順>

17명 당선, 「政治동국」과시

“金東英·崔炯佑 4選...黃明秀·慎順範·金榮龜 3選..”

3選의원 立志의인생 유명

慎順範 (61정치·평민)



『소나무동포 여러분, 자각시민들이시오』라는 책에서 입지적인 생으로 유명한 慎順範은 지역구민과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노랫가라도 뽑는 소탈한 성격과 달변가로도 성명나 있다. 11대대 군소정당(安民黨)의 공천으로 1등당선, 「二頭三起」한 화제의 주인공이기도. 신민당 원내 수석부총무 국회운영위원 간사 민주협 상임운영위원 평민당 당헌당규위원장 당무위원등으로 원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격전지서 「金」따나 3選영광

金榮龜 (62경제·민정)



총재비서실장을 맡고있는 金榮龜은 靑年운동에 몸바쳐온 3선의원(11·12·13대). 6선의원등 6명이 경합을 벌인 격전지에 뛰어들어亂戰 끝에 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국회의원개정특위 위원·재무위원·운영위원·원내부총무등을 역임. 4·19 당시 모교 학생대의원회 會長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13대대통령선거에서는 민정당청년지원봉사단장으로 활약.

부총재重用 관료경력 다채

具滋春 (75대원·공화)



육군대령에편. 모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84년 2차해금후 정계복귀에 성공한 具滋春은 화려한 경력과 지역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현역의원을 두르고 첫출발을 달았다. 서울시경국장·제주도지사·수산시장·경북지사·서울시장·내무부장관등을 역임.

지역기반 튼튼 厚德한 인물

金吉坤 (66정치·평민)



구신민당대통령 후보(金大中)경호 담당역을 맡았고 평민당 정책위원·13대대통령선거 광주전남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 등으로 활약. 소탈 후덕하다는 인물을 받은 金吉坤은 지명도가 높은 지역구에 첫출발. 野票를 모아 6對1의 관문을 통과했다.

捲土重來 성공 원내총무발탁

崔炯佑 (63정치·민주)



「右炯佑」로 통할만큼 많은 업적을 쌓아온 중앙급 정치인. 정치체급수 捲土重來를 선언, 6명의 경합속에 2위의 세배에 달

하는 압승을 거둬 4선(8·9·10·13대)이 됐다. 의결수 야인으로서 4黨國會的 원내總務로 임명돼 의회민주주의의 사령탑에 올랐다. 구신민당 당기위원장·민주협간사장·신민당 총재경선대위·민주당 부총재·13대대통령選對委부본부장등 다채로운 경력.

언론계출신 前·現役 제저

李肯珪 (65법학·민정)



前·現役의원을 제치고 당선한 李肯珪은 다년간 언론계에 몸담아온 정치新人. 오랜 언론생활에서 익힌 순발력과 논리정연한 정지감각으로 열성적인 귀향활동 끝에 첫출발이 첫당선의 쾌거를 이뤘다. 신아일보 논설위원·경향신문 정치부장·특정기획부장·한국기자협회장·국제기자연맹(I.F.J) 부회장·KBS사단장 상무이사등을 역임. 초선임에도 부대변인에 기용된 李肯珪은 호소력이 뛰어난 이른가로 통한다.

서민행정에 밝은 內務通

劉基天 (70행정·민정)



입선관료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 初選議員. 모교서 행정학 석사 받은 劉基天은 오랜 공직 생활속에 서민행정에 밝은 내무통으로 알려져있다. 춘천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장·제주도 부지사·내무부 감사관·강원도 부지사·산림청 차장등을 거쳐 평안남도지사를 지냈었다.

전막事務所서 「二頭三起」

金洪萬 (71행정·공화)



12대에 「전막사무실」을 차려놓고 善戰한 결과 차갑나선 의고배를 마신 金洪萬은 11대에 이어 세번째 도전에서 마침내 高地등정에 성공. 현역의원들과 7대1의 열전을 벌여 5만표차의 압승으로 初選의원이었다. 재차시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회장을 맡는 등 탁월한 조직력과 지도력을 보였다. 正論앞에선 굽힐줄 모름과 단상에 오르길 싫어하는 겸손한 서민성 정치인. 반면 한·일골목외교 반대투쟁등에선 선봉에 나선 熱血漢.

民推출판국장 출신 초선

朴泰權 (75정의·민주)



모교 경영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지낸 朴泰權은 金秉지 도전 세번째에 선량익의지와 와집념의 정치인. 현역의원과의 예측할수없는 접전을 벌여 정계일선에 진출했다. 민주협출

판문화국장으로서 폭넓은 활약을 보였고 농어촌개발연구소회장·민주협연론자유특별부위원장·민주당 중앙상무위원등을 역임, 정치역량을 닦았으며 금자유총주식회사 대표이사로도 활동했다.

初選, 통일문제에 정통해

李讚九 (78행정·평민)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국방행정학을 전공. 노외문제연구회 통일문제 담당 보좌역을 지냈고 국내 최초로 통일문제에 관한 저서 『3단계통일대책』을 내놓은 통일정책에 관한 여러편의 논문을 발표한 통일문제 전문가. 78년 체제비판 발언으로 국토통일연 교수직을 사임. 금년 재야인사 영입시 평민당에 입당, 당무지도위원을 맡았다.

사회사업 앞장 무소속 神話

李起彬 (79경원·무소속)



무소속의 현대 컵을 안고 현역의 원과 맞서 두배에 가까운 압승을 거둬 무소속 神話를 낳은 화제의 인물.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경제발전에서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역설, 중소기업육성책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 李起彬은 한강실업고, 학교법인 대기학원 설립등 육영사업과 사회사업에 앞장서 「숨은사회사업가」로 알려져있다.

법학전공의 學者정치인

柳寅鶴 (法博在·평민)



전남대·메이주 리대를 거쳐 모교 대학원에서 法博과정에 있는 교수 출신 정치인. 모교에서 강의를 맡았고, 한양대 교수를 역임했다. 법4·19, 6·3 동지회 연구소장·법무부 정책자문위원·평민당 정책선진위원을 지낸 바 있고 광주신보 논설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차츰차츰 두배가 넘는 압승을 거둬 첫 의정단상에 오른 柳寅鶴은 당무지도위원에 발탁, 학자정치인으로서 정계수위에 뛰어난 역량이 기대된다.

◇13대 당선동문 명단

성명	출입구분	정당별	지역구분
黃明秀	53	정치	민주 수 양 아산
鄭基榮	54	정치	평 민 진 국 구
權魯甲	58	경제	평 민 목 포
朴志遠	58	경제	민 정 화 성
金東英	60	정치	민주 주 거 창
慎順範	61	정치	평 민 연 연 전
金榮龜	62	경제	민 정 동대문 乙
崔炯佑	63	정치	민주 동 래 乙
李肯珪	65	법학	민 정 서 천
金吉坤	66	정치	평 민 담양·장성
劉基天	70	행정	민 정 전 국 구
金洪萬	71	행정	공 화 대 전 중
朴泰權	75	정의	민주 서 산
具滋春	75	대원	공 화 고령·달성
李讚九	78	행정	평 민 성 남 乙
李起彬	79	경원	무소속 북 제 구
柳寅鶴	法博과정	평 민 영 안	

各黨職 개편 인사발표

本會 崔載九고문 부총재에

高炳鉉·張忠準·鄭基用 동문등 요직 맡아

이달에 있었던 各黨 당직 개편에서 本會 崔載九(52국문)고문을 비롯 高炳鉉(59경제)張忠準(61경제)鄭基用(62정치) 樸松雄(65수학)동문 등 7명이 각각 주요요직에

再選을 노렸으나 실패. 11대의원을 지냈고, 신민당 조직국장을 지내는데 조직관리가 인품, 신랄직실자칭소년 고등공민학교장·한국군난수출조합 이사장·本會이사를 역임했다.



崔載九



張忠準



鄭基用

張忠準 平民 사무차장

4·19대 학생대표로 景武臺에 들어가 李대통령에게 하야권고한 일화로 유명한 張忠準(61·경제·本회이사) 동문은 12대에 이어 再選을 노렸으나 근소한 차점낙선으로 무산됐다. 구신민당 중앙사무위원·부의장등을 역임했고 민주협상임운영위원으로도 활약.

鄭基用 民主 대표보좌역

鄭基用(62정치·本회이사) 동문은 프레젠테이션 전문위원을 거쳐 대표위원보좌역에 중용됐다. 미 워싱턴에서 10여년간 워싱턴韓民新報사장을 역임하면서 재미교포사회에 공헌을 해오다 지난85년 프레젠테이션 전문위원으로 귀국했다.

樸松雄 共和총재 보좌역

총재特補에 임명된 樸松雄(65수학·本회이사) 동문은 4·19회장 공화당 당부위원등을 지냈고 이번 총선서 용산구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李年錫 民主 청년국장

李年錫(74경제·本회이사) 동문은 조직국 직능부장·조직국 부국장을 거쳐 이번에 青年局長에 기용됐다.

朴正永 民主 의원실장

朴正永(67정치·本회이사) 동문은 무임소장관실 전문위원을 거쳐 민정당중앙훈련원교수·민정당 직능부장을 지냈으며 이번개편서 의원실장에 재발탁됐다.

국제大學長 취임

吳德永 동문



吳德永(72경제)동문은 12일 류교부 승인을 거쳐 국제大學長에 취임했다. 吳동문은 국민대를 졸업한 뒤 모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경향신문 논설위원도 역임. 모교 교수로도 재직하며 경상대학교장과 경영대학장등을 지낸 바 있다.

방송廣告公社 사장

南鍾錫 동문



南鍾錫(76행정)동문은 12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게 취임했다. 南동문은 단국대를 졸업하고 81년 육군준장으로 예편한 뒤 국가안보연구원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등을 역임했고 모교서 행정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동아생명보험 사장에

安澈英 동문

安澈英(52경제·本회상무이사) 동문은 지난 2일 임시주총에서 동아생명보험 사장에 선임됐다.

東亞건설 부회장을 역임한 安동문은 대한통운(주)총합기획실장을 비롯해 총무담당상무, 대표이사등을 지내며 운송업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왔고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로도 활동. 최근에는 올림피아드 공모로 국민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動資部 자원개발 국장

金泰坤 동문

金泰坤(65행정·本회 이사) 동문은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에 자원개발국장으로 부임했다.

지난 65년 3회行試를 거쳐 官界에 투신한 이래 金동문은 동자부 감사관·석유국장·관무국장등 요직을 거쳤다. 본회 이사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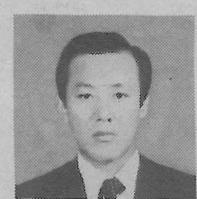
소방학교장 취임

李仁植 동문

李仁植(61법학·本會이사) 동문은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에 자원개발국장으로 부임했다.

대한석탄공사 理事長 취임

本회 鄭寬溶 부회장



本회 鄭寬溶(58법학)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에 임명, 발령됐다. 정통관료 출신인 鄭부회장은 총무처 전신 國務院 사무국에서 출발, 86년 총무처장관까지 역임한 총무처총. 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원장·국보위 사무처장·중앙선관위 사무처장·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등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내부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문은 최근 성동소방서장에서 울산시 소방학교장에 취임했다. 李동문은 해병소령 예편후 소방본부 지도과, 남부소방서장등을 거쳐 86년부터 성동소방서장으로 근무해왔다. 85년 모교 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를 받기도 한 李동문은 東進會 회장과 본회이사로서 동창회발전에도 기여해왔다.

三德회계법인 설립

金龍模 동문



金龍模(59경제·공인회계사)동문은 지난달 三德회계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했다. 대경회계법인 대표로 있던 金동문은 국제화·대형화추세에

본회 인천지부 감사로도 활동 중이다.

雷虛학술상 수상

徐潤吉 동문

徐潤吉(68물리·모교교수) 동문은 최근 제6회 雷虛물리학술상 수상자(상금 1백만원)로 결정됐다. 수상논문은「고려시대의 密敎연구」.

모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徐동문은 학생처장을 역임했고, 본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명미화장품(株)理事로 鄭在琪 동문

鄭在琪(68정치)동문은 명미화장품(주)88년 주주총회에서 理事에 선임됐다. 鄭동문은 ROTC를 거쳐 동아제약에 입사후 계열사인 라



본인의 近況이나 위층들의 請示等을 隨時 提報 必也 有之 巴 望 也

발맞춰 동사를 합병 설립한 것인데 공인회계사 130명과 세계 54개국의 조직을 가진 메타드회계법인.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며, 本會상무이사로서 모교발전에 헌신해 오고 있다. 전화 276-1671-80.

정부청사경비대목사로 金月煥 동문

金月煥(58법학·本회이사)동문은 최근 중경교회 목사로서 과천 정부제2청사 경비대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본회 이사로 활동중인 金동문은 수원지법상임 청소년선도위원·치안문제연구소 전문위원·법민족을림파추진 중앙협의회 대의원등을 역임했다.

伊정부최고훈장 받아 朴翊柱 동문

朴翊柱(61정치·11·12대의원)동문은 지난달韓·伊의 원전선협회장을 역임했다. 본회 이사로도 활동중.

한 공모로 이탈리아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인 「코넬 다로레훈장」을 전수받았다.

주월 9사단 참모장, 5관구부 사령관등을 거쳐 육군준장 예편. 국외 건설위원장, 韓·伊의 원전선협회를 역임했다. 본회 이사로도 활동중.

한 공모로 이탈리아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인 「코넬 다로레훈장」을 전수받았다.

주월 9사단 참모장, 5관구부 사령관등을 거쳐 육군준장 예편. 국외 건설위원장, 韓·伊의 원전선협회를 역임했다. 본회 이사로도 활동중.

준설공사所長 영진 卓然復 동문

卓然復(64법학·本회이사) 동문은 지난 16일자로 대한건설공사 인천사무소장으로 영진됐다. 동공사 관리과장으로 재임하던 卓동문은 한국산업훈련협회 관리감독자의 부회장을 지냈고

미화장품(주)에서 총무부처장·윌라부장등을 역임해 왔다. 전화 783-6098.

서초경찰서장 영진 金大圓 동문

金大圓(70경제·本회이사)동문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 경찰서에 발령됐다.

본회 이사로 활약중인 金동문은 모교 경향과 출신중 총경 1호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서울시경 경호계장을 비롯해 전북도청 작전과장등을 역임한 바 있고 치안본부 기획과장으로 근무해왔다.

日 국미유학생에 선발 安重喆 동문

일본 大正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安重喆(75물리)동문은 지난 3월 15일 일본 문부성 國費留學生 선발에 채용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大正大 전체에서 8년간에 있는 일로써 모교의 영광이기도.

안동문은 공문법사를 거쳐 83년 渡日, 政大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안동문은 공문법사를 거쳐 83년 渡日, 政大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콘트롤스(株)무역부장 魚演浩 동문

魚演浩(78일학·本회이사) 동문은 최근 콘트롤스(주)무역부장으로 영진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를 거쳐 외국 어학원 원장을 지낸 魚동문은 철원여행사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겼다. 전화 266-7171-3.

이문수同門 대통령상 경찰간부 졸업식서 金鍾福 동문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동문은 치안본부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모교 경향과 출신 경위임관자는 이남주(83) 최호열(83) 안재봉(85) 강신걸(87) 박형길(88) 동문등 총 7명이다.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문수(87경행) 동문은 지난달 29일 제3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임명됐다.

崔載九 共和 부총재

본회 회장을 지낸 崔載九고문은 동국인과 너무도 친숙한 얼굴. 4選의원(8·9·10·12대)으로 국회경과위원장·국민당부총재등을 지냈다. 지난 4·26총선서 「新정치 1번지」라는 강남甲에 출마 아깝게 차점낙선의 불운을 겪었으나 부총재에 중용됐다. 地自制 특위원장겸임.

高炳鉉 共和 중앙위원직장

공화당 중앙위원직장에 임명된 高炳鉉(59경제) 동문은 이번 총선서 감사甲에 출마

長興관산중교장 부임 李政龍 동문

교육계에 헌신해온 李政龍(52국문·시인) 동문은 최근 전남 여수초등학교 교장에

서 장흥군 冠山中學校長으로서 자리를 옮겼다.

李동문은 또 지난 3월 詩集『대술에 담빔은 흐르고』(시문학사권·오늘의 정에시인 시리즈 32권)을 출간하기도 했다.

75년『월간문학』, 76년『시조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온 李

동문은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로도 활동중이다. 전화 (0665) 67-3033.

대한석탄공사 理事長 취임

本회 鄭寬溶 부회장



本회 鄭寬溶(58법학)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대한석탄공사 이사장에 임명, 발령됐다. 정통관료 출신인 鄭부회장은 총무처 전신 國務院 사무국에서 출발, 86년 총무처장관까지 역임한 총무처총. 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원장·국보위 사무처장·중앙선관위 사무처장·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등으로 일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내부부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확실한 투자, 확실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표 771-06



現代公認仲介士 合同事務所

公認仲介士 金炯敏(75경행)

가장 안전하고 높은수익 土地투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9 광정빌딩 304호
 代表 549-8266, 549-8264-7, 546-2882

정정 지난호 동문동정(5면)중 淨光中교장을李鍾福(59물리)동문으로 바로잡습니다.

開校 82주년 기념식 거행

학교·재단·동창회 힘모아 "東國發展다짐,"

모교 개교82주년기념식이 지난 6일 오전 11시 黃彰經재단이사장, 李智冠모교총장, 본회 金東正, 安재란, 尹鎭均부회장과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金東英, 金洪萬, 金吉坤, 鄭基榮등 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중앙당에서 거행됐다.

삼귀의례, 발원문봉독, 장기근속자표창, 총장기념사, 이사장교사, 동창회장축사등의 순으로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李智冠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82년의 東國 역사를 바탕으로 본교가고 동안 겪어야했던 모든것을 거울삼아 명문東國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우리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鄭在哲本회회장은 金東正 부회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학교와 재단, 동창회가 하나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자랑스런 東國 1세기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이 끝난뒤 東國別館(구 재향군인회관) 입주식과 축하연회가 동국별관현관앞에서 있었다.

李총장, 2억원 기탁 모교 교직원혜택연수기금

李智冠모교총장은 「교직원 해외파견연수특별기금」으로 2억원을 지난달 4일 모교학술부에게 기탁했다.

이 해외파견연수기금은 교수 및 직원의 학구욕고취와 학교발전의 효율성배양을 목적으로 지난 82년 2억원을 모기금으로 적립, 그 年利로 교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李총장의 회사기탁에 따라 특별기금의 母基金은 4억여원에 달하게 됐다.

慶州 기념사업추진 발족 캠퍼스설립 10주년 맞아

모교 경주캠퍼스 1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이의 구체적 사업을 담당할 실무위원회와 法政전립위원회



가 지난달 각각 발족되었다. 同위원회는 閔丙天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정각원장, 학처장급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위원회는 張植植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3차장, 정각원장, 간사 金永宗교수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오는 10주년기념사업으로 ▲대학교와 지역사회를 주제로한 학술세미나 ▲10年史발간 ▲고교교사초청세미나 ▲장학기금조성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목덕대 동제·壬石한마당

서울·경주캠퍼스 東國祝典 성황리 펼쳐져

모교 개교82주년기념 東國祝典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렸다.

「광주민중환정계승및 목덕대 동제」란 제목의 이번 축제는 과거 일반학생들과 괴리된 행사에서 벗어나 전교생이 주제적으로 참여하는 「함께하는 祝典」 「동국발전과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광주학생공연, 탈놀이, 조국통일강연회, 마당극, 모의대통령선거, 동양의발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한편, 「경주캠퍼스설립 10주년기념 壬石한마당」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주총학생회 주최로 경주캠퍼스에서 열렸다.

學則改定 의결

학생정치활동 관련조항등

88학년도 새학칙안이 두차례에 걸친 학처장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문교부의 승인만을 남겨놓았다.

이번 학칙개정작업은 지난해 학칙규정심의위원회에서 학칙개

정대안을 마련, 2월부터 실무 작업에 들어갔는데 새 학칙의 주요골자는 ▲졸업정원제폐지에 따른관련조항 개정 ▲학생의 정치활동에 관한 독소조항폐지 ▲단과대개편에 따른 편제개편등이다.

새학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문교부學術研究費 지급대상자

모교교수 11명 선정돼

모교교수 11명이 88학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한 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발된 연구비지급교수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林虎一(독문과) = 독일사실주의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당통이 죽음을 통해본 이데올로기와 허위의식 ▲金東俊(국교

과) = 사설시조론 ▲吳英珍(일문과) = 일본 근대시에 나타난 한국관 ▲金相鉉(국사과) = 신라대의 화엄사상과 선사상 ▲趙昌郁(경영과) = 프랜차이즈의 거래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李鎭春(수학과) = Injectivity를 이용한 axia mastisatoity정리에 대한연구 ▲신재호(전자과) = A DM부호와 신호를 위한 디지털 필터주조에 관한연구 ▲金生彬(토공과) = 아이치의 원자결

4·19기념 東國人 등산대회 2백88팀 총1천2백명 참가

모교 4·19기념 「제19회 東國人 등산대회」가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2백88팀 총 1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일원에 배풀어졌다.

이번 등산대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4·19기념탑(수유리소재)을 처음으로 공식합배한뒤 대동문, 태고사터, 용암문을 거쳐 도선사에 이르는 20km 구간에서 펼쳐졌는데, 이날 최우수상은 이과대 물리학과팀이 차지했다.

4·19기념탑앞에서 가진 회의식에서 李智冠모교총장은 『오늘 산에 오르면서 우리는 4월의 역사를 뒤돌아 보고 東國人的 긍지를 드높이면서 산의 포용력과 씩씩한 기상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캠퍼스에서도 閔丙天 부총장을 비롯 교수·학생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남산일원에서 등산대회를 실시했는데 최우수상은 전산학과팀이 차지했다.

현상에 관한연구 ▲金圭石(전공과) = 유공합성섬유의 탄소성거동에 관한연구 ▲李明燾(농학과) = 다수성 옥수수종종 옥성을위한 열대식작물의 적응성평가 및 선발 ▲許正植(전산과) = 자연어 사서구성에 관한연구

慶州교원 6명 임용 명예교수 3명 포함

모교당국은 지난 4월 1일자로 蔡仁植씨를 비롯한 국내한의학회 元老 3명을 명예교수로 임명하는등 경주캠퍼스 신규교원 6명을 추가발령했다.

특히 이번이 새로 임용된 명예교수들은 전통 한의학분야의 원로들로 앞으로 한의과대학에서 매달 2회정도 특강을 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신규교원은 다음과 같다.

- ◊ 명예교수 ▲蔡仁植(한의과대 한의학과) ▲安秉國(〃) ▲李昌彬(〃) ▲신인교수 ▲康東秀(한의과대 한의학과 부교수) ▲朴憲在(〃, 진료교수) ▲池田功(인문과학대 일문학과 대우전임강사)

총장기 고교 능구대회 대전고등 23개팀 참가

모교 「제14회 총장기정말 전국 남녀고교능구대회」가 지난 9일 오전 11시 모교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李智冠총장은 이날 대회를 통해 『선수·인원여러분이 스포츠정신을 익자, 평소에도 같은 마음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일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대회참가팀을 격려했다.

「新羅文化」발간 모교 신라문화연구소

모교 신라문화연구소(소장=金相鉉교수)에서는 「新羅文化」논문집 3·4집 합본판을 지난 5일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은 「서동요연구」를 비롯한 논문 9편등 총 2백 70여페이지에 달하며 발행부수는 1천부이다.

同연구소에서는 신라문화확포 사업을 오는 10월에, 논문집 5집 발간을 통해발간중에 각각 계획하고 있다.

(祝) 東國大學校 開校 82周年

母校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第13代 國會議員當選 同門一同

- | | | | | | | | | |
|---|---|---|---|---|---|---|---|---|
| 黃 | 明 | 秀 | 金 | 榮 | 龜 | 朴 | 泰 | 權 |
| 鄭 | 基 | 榮 | 崔 | 炯 | 佑 | 具 | 滋 | 春 |
| 權 | 魯 | 甲 | 李 | 肯 | 珪 | 李 | 讚 | 九 |
| 權 | 志 | 遠 | 金 | 吉 | 坤 | 李 | 起 | 彬 |
| 金 | 東 | 英 | 劉 | 基 | 天 | 柳 | 寅 | 鶴 |
| 愼 | 順 | 範 | 金 | 洪 | 萬 | | | |

다시 올리고 싶은 그때 그 作品

세일즈맨 하면 금방 아더 밀러를 연상케 된다. 1949년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을 발표한 아더 밀러는 2차대전 이후 미국극계에 혜성같이 나타난 테네시 윌리엄스와 함께 2대작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더 밀러는 1915년 뉴욕에서 탄생, 부부클럽에서 성장했고 소학교를 나온 이후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1938년 미취간 대학을 졸업후 라디오 드라마, 단편소설, 희곡등을 발표 1947년, 첫번째 희곡 「아들을 위하여」(All my sons)를 발표, 극평가 써클상을 받게 되면서 극작가로서의 잠재가 기대되었던 1949년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일즈맨의 죽음」을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함께 戰後 2대 걸작으로 꼽는 이유는 이 두 작가가 취급하는 소재는 서로 다르면서 무대상의 기교에 있어서는 공통된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전후 미국인들의 사상이 작품 가운데 여실히 묘사, 전개되어 있다. 주인공 윌리 로우먼의 비극

은 속죄적인 비극이 아니라 그의 사회환경이 빚어내는 비극인 것이다.

주인공 윌리 로우먼은 아메리카니즘의 상징이며 미국사회의 타입인 동시에 대변자로 여기고 있다. 윌리 로우먼과 같이 선량한 세일즈맨도 자살

바지의 사람에게 동정할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개인과 사회의 급격한 테마를 찾아낼 것인가에 분화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선 종래의 연극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국대학교연극영화학과
제4회 졸업공연
세일즈맨의 죽음
아더·밀러 작
국립극장
'88.10.6~7 PM3:30/7:30

웃지 못할 뒷얘기로 기억되는 진주지방공연

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는 비극의 온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작품이 사전을 취급함에 있어 스케일이 큰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사건으로 위축시켰기 때문에 이 작품에선 지중스런 아

플래시백 수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윌리 로우먼의 생각에 따라서 사건이 과거나 환상의 세계로 자유스럽게 움직인다. 윌리 로우먼이 추억에 잠기면 고등학교때의 아들 형제가 나타나며 돈을 벌고 싶은 욕구

가 솟구칠때면 벤이라는 그의 형이 환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윌리 로우먼이 생각하는 과거의 인물이 동일장면에 등장하거나 같은 무대위에 음식점·사무실등이 손쉽게 나타나며 또 어떤 순간 대사 한마디로 장면이



金 興 雨

<64연영·모교 교수>

바뀌거나 나중에 나타날 사건의 단서가 미리 몇마디 대사로서 암시된다. 이런 몇가지 기교의 이해없는 관객은 혼란을 일으키거나 완전히 소화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작품을 본교 연극영화

과 학생들이 공연한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다. 서울공연에서는 의아해 하거나 극적 기교에 감탄하거나 돌출의하 나로 나타났었다. 이때 「진주개천예술제」에서 연극한 작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이 공연을 무리라고 여기면서도 지방역시 새 기법의 새로운 연극을 함께 향유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결국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모두 15명 정도의 학생이 내려갔는데 현재 KBS-TV의 PD인 김홍중, 성우인 윤병훈, 한창 영화와 TV에서 활동한 바 있는 조재성, 여행사 간부 신현재, 시공보실의 장

경철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논개사당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어느 영화관에 도착한 우리는 밤을 새워 세트를 제작했고 상치든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조명을 설치했다. (조명설치중 2층에서 떨어진 윤병훈이 짐에서 걸러 위기를 모면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느낌이다)

밤을 꼬박 새워 무대를 끝낸 다음날 공연시간이 일박하자, 관객은 극장앞을 짝 메우고 있었다. 극장측과 초창기, 그리고 분장실도 없는 극장방도에서 분장하던 배우들은 환호성과 기대에 벅차 있었다. 막을 올릴 순간에는 극장내에는 수라장이 되었다. 오프닝 뮤직이 나가자 장내는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5분, 10분 연극이 진행되자 장내는 차츰 소음이 일기 시작하더니 20여분이 흐르면서 장내는 환타소리라, 「치워라!」등의 고함소리로 쿨뻐 박이 되어 더 이상 극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급히 대책을 강구, 주인공 조우먼만 떠나게 하면서 경총명준 2시간여의 연극을 40분으로 축소 공연하고 말았다.

그후 한동안 연극공연이 진주에 초청되는 경우는 없었다. 「세일즈맨의 죽음」은 본교공연 이점에도 극계에서 두어차례 공연했지만 그후에는 각 극단에서 즐겨 공연하는 레퍼타리가 되었고 최근에는 수차례 영광 공연까지 시도된 바 있다.

본교연극영화과 학생들의 졸업공연으로 아더 밀러의 「아들을 위하여」가 공연되었다. 이제 좀 진주 공연을 간단히 어찌할까? 공연장시설도 관객의 혼란도 잘 되어있을테니 「세일즈맨의 죽음」 공연처럼은 되지않을 것이다. 진주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다시 공연해보고 싶은게 당시 내내려갔던 모두의 꿈일 것이다.

에 대한 제언의 예리함을 보이고 있다. <정우사기>

詩集 「당신의 눈은...」

申相星 著

申相星(70국문·유도대교수) 동문이 시집 「당신의 눈을 들여다 보면」을 내놓았다. 작가의 사춘기시절부터 고뇌와 절망의 시기였던 대학시절까지의 詩를 중심으로 엮은 이 시집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영원에 대한 그리움,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려져 있다. <경문출판사기>

新지안내

鄭柄朝 著

모교 국민윤리학과교수인 鄭柄朝(70인월) 동문의 불교평론집 「지옥 감시다」가 출간되었다. 불교사상의 철학적 근거, 현 대사회속에서 불교역할 등에 대해서 불교 학자의 시각으로 불교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특히, 사원기능의 활성화등을 들어 불교 현대화

“政治를 하려면 「D大」를 나와야”

당정은 모두 「東國黨」...

○...13대국회의원 당선동문 17명을위한 축하연이 열린 16 일 밤에서 초콜에는 3백여 동문들이 참석, 축하의 열기로 가득.

더우기 各黨 요직인선에서도 계속 남보가 들어와 동국의 명예를 한층 떨치고 있는데, 항간에는 「D大 출신이 아니면 힘도 못 쓴다」는 동경 어린 푸념도 있어 막강 東國人脈을 느꼈수 있기도. 이 가슴뿌듯한 소식에 본 「東同動子」한참 씩, 「국민의대 표인 동시에 동국의 選良인 여러분분의 또하나의 당정은 「東國黨」임을 늘 기억해 주시길...

이제는 內實기할때

○...올해로 개교 82주년을 맞이하면서 날로 교세를 신

장해 온 모교가 그 도약의 발판을 더욱 넓힘으로써 보다 큰 東國發展을 다짐했다고. 그동안 8만 東國人的의 열원이던 재향군인회관 부지대



東國대동동창회동동지인

입이 마침내 섬사되어 지난 6일 개교기념식날 입주식을 갖고 東國別館이라 명명해 캠퍼스확충에 한몫을 담당할 것이라는데...

이제는 東國1백주년을 앞

“海外支部 활발...有소식이 有결속”

두고 의정적인 발전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도록 학교·재단·동문 모두가 합심해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有소식이 有결속...

○...본회에서 펼치고 있는 「海外支部 현황제과와」 사업에 속속 소식이 들어와 담당직원은 폭주하는 업무량속에서도 싱글벙글.

매일 말일이 편지 쓰는 날로 장려도가 있을만큼 편지 한통 띄우기가 힘든 요즘 실정이고 보면, 바쁜 이념생활속에서도 합심 소식을 보내오는 해외동문들의 모교애는 가히 감동적이기도.

異城萬里에서도 모교와 동창회를 염려하고 성원해주는 해외동문들께 本 동동동자 「모교소식, 동문소식 자주자주전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現代自動車(株) HYUNDAI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Y2소나타” 판매가시 2,000⁰⁰⁰
판매과장: 柳在善 TEL 274-3103~7 (70동경·ROTC 8기) 야간 914-6584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중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 (86경원)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理事
●城東區 公認仲介士會 會長
전화: (사) 234-4777, 253-9321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금동아파트 정문앞)

■ 獨 獨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 출력 증가/수명 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Metro quality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원) TEL. (02) 213-1392/3107 아파티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株)
황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 266-6662, 265-3258
지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芸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의)
■ 사무용 가구 서울 중로구 교남동 61-2
■ 혼례용 가구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원)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전 6권 완결!
총권 170페이지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결!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은 우리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걸작의 입단,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격정의 배짱과 돈키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근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주먹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순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꺾바쁜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작가 야신적으로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솔한 사람들이 땅을 갈탈한 일본 아류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렁뱅이 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전 6권 / 국판 · 각권 300면내외 / 각권 값 3,300원 *날권판매 *서점에 있습니다.

생명공학에서도 앞서가는 태평양화학

自然이 주는 쾌감

본격 자연성 남성화장품 - 캐남골드쿨

남자의 여름피부에
자연의 상쾌함이 스민다.
자연성분이 함유된 남성화장품 -
캐남골드쿨.



여름철 남성의 피부는 과도한 땀과 피지분비, 캐남골드쿨은 PSL, 토코페롤, 해조추출물 등의 자연성분을 함유, 외부자극과 각종 피부트러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본격 남성 스킨케어 화장품입니다.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 (권장소비저가액)
- 캐남골드쿨 로션.....150ml - 7,000원
 - 캐남골드쿨 스킨로션.....150ml - 7,000원
 - 캐남골드쿨 스킨수딩.....150ml - 7,000원

이오리 캐남골드
'88서울올림픽 공식 남성화장품

태평양화학(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1